

재벌·대기업 토지보유 규모 증가

정동영 의원 "10년새 상위 100대 대기업, 4.1억평에서 8.2억평 늘어 422조원 더 ↑... 불로소득 환수 필요"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토지 사재기를 통해 토지보유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유 기업 내에서도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고,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000만평(여의도 88만평)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더 늘었다.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관교신도시 270만평) 450개,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1,752개) 중에서도 100개 법인이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3조원에 해당한다.

이들보다 더 상위인 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관교 210개)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관교 21개 규

모),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1%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0.9억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7억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최상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의 비율은 13%였는데 2017년은 30%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투기를 막았던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용한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제 공공재를 이

용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한반도 평화 미사' 참석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3박4일의 프랑스 국민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국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6시25분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약 1시간40분의 비행 끝에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문 대통령은 이날인 17일부터 이탈리아 로마 대통령궁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 바티칸시국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한다. /뉴시스

홍영표 "가짜뉴스 심각하게 만연"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토론회서 "정기국회서 대책 마련할 것"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책 세우자는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우리 사회에 허위조작정보가 상당히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의적절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며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많은 뉴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지금 와서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며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지속해나가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 80%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에 저희 당에서도 박광은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11개의 법안이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일각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용어 자체가 '가짜뉴스'로 보편화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특히 SNS를 통해 전파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이에 대한 오해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11월 초부터 법안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답변해드립니다"...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제357회 전북도의회 3차 본회의가 1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내 59곳 어린이집 석면철거 계획 없어

이명연 의원, 도정질문서 "도, 대표도서관 설립·인원 충원해야"



어린이집 전체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은 75개소에 이르는데 철거계획은 10곳에 불과하고 59곳의 어린이집은 철거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명연 의원(전주 11·사진)이 제35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밝혔다.

이명연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2,747개소 중 1,136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철거계획도 밝

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의 경우 500㎡ 이하 시설들에 대한 석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철거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따져 묻고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대해서도 석면철거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연 의원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립과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대표도서관 인력과 사서직 충원을 요구하면서 이번 발의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표도서관 사서직을 포함시키고 년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도서 2층 한편의 행정자료실을 도서관으로 확대 리모델링하고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에서 대표도

서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현재 대표도서관의 인력현황은 시·군 공공도서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 인력과 조직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의 경우 2당당 총인원 32명, 사서직 11명(정규직)으로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이 별도로 38명의 총직원에 18명의 사서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사서직 법정요구인원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법정요구인원 14명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2명만 고용한 상태"라며 이번 발의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도서관 사서직을 포함시키고 년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지

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붙였다. /뉴시스

www.ekr.or.kr

축! 전주매일 창간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사업을 농어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 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 Hub로 육성,
관광인프라와 소득기반을 구축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꿈이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